세계 아동들의 인권 유린 및 침해 사례

사례1.

“면도칼로 생식기 절단, 10대 소녀들 죽음의 의식 할례” 피해 여성만 1억 3000만 명

국제구호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여성 할례 철폐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월드비전은 11일 공식 페이스북에 ‘월드비전, 여성할례 철폐 캠페인’이라는 제목으

로 관련한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다. 월드비전은 "평균 10세 소녀들이 겪는 죽음의 의식 여성 할례"라며 "면도칼과 깨진 유리, 제대로 된 의료 장비 없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시행되는 할례. 과다 출혈, 쇼크, 각종 감염, 합병증. 혹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의식"이라고 전했다.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ltilation FGM)는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성냥 머리 크기만한 구멍만 남긴 채 절단한 뒤 순결을 위해 실로 봉해 버리는 것이다. 의료 장비 없이 집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례를 경험한 여성은 질과 방광, 항문 사이에 잘못된 샛길이 생기는 '산과적 누공'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산과적 누공에 걸린 환자들은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해 감염으로 고생할 수 있고 출산 시에 극심한 통증과 난산을 겪는다.

월드비전은 소말리아 한 소녀와 케냐 선생님의 증언으로 할례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10대 소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제 몸의 모든 부분이 부들부들 떨리고 죽고 싶었어요. 통증으로 떨리는 몸을 사람들이 꼭 붙잡았어요." (소말리아, 티지스)

"한 여학생이 5학년 되던 날 할례 때문에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8학년이 되던 해 교실엔 여학생이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할례를 견뎌내야 하고 그 후엔 성인으로 간주되어 강제 결혼을 하게 되죠." (케냐 남서부 학교 선생님)

"너무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아." (와리스 디리, 소말리아 출신 패션모델)

사례2.

여성 할례, 커지지 않도록 '가슴 다림질'…"엄마는 좋은 일 한다고 믿어"

여성 할례, 커지지 않도록 '가슴 다림질'…"엄마는 좋은 일 한다고 믿어"

출처=/유튜브 캡처

여자 아이의 가슴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가슴 다림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메트로는 15일(현지시간) 뜨거운 다리미로 가슴을 다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성기 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 FGM)의 생존자인 레일라 후세인은 매체에 이같은 '가슴 다림질' 의식에 대해 이야기 했다.

여성을 위한 유엔 기구의 영국 국가위원회는 이같은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에도 3백80만에 달하는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할례는 특히 카메론,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널리 퍼져있으며며, 수천명의 영국 소녀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같은 유해 사례에 대해 문화, 전통 또는 종교의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이는 변명일 뿐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가슴 다림질'은 영성의 성적 매력을 제어하는 또다른 방법이며, 남성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강간에서 여성을 보호하도록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 할례의 목적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고통은 몇일에서 몇주동아 지속되고, 약 58%가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딸 혹은 어린 여성을 위해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여성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 침묵은 이 현상을 영속시켰다.'

◈ 영상으로 뉴스 보기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16010009026

사례3.

“스와질랜드 어린이 3명 중 1명이 성범죄 피해 경험”..그 후의 삶

모든 어린이들은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세계 수백만 어린이들이 사회경제적 배경, 나이, 종교, 문화로 인해 매일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7년 유니세프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주관으로 실행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스와질랜드 여자 어린이들의 성적, 물리적 학대 노출 수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려 3명 중 1명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13~24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어린이 학대와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3명 중 1명의 여성이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약 4명 중 1명은 물리적 폭행을 경험했고, 10명 중 3명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가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 조사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유니세프 스와질랜드 사무소 자마 굴라이드 박사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은 이후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공개된 후,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와질랜드 정부는 유니세프 및 지역 사회기관, 사법부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보호자 없는 어린이의 폭력 노출

그 대책 중 하나로, 아동보호 자원봉사자를 육성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동시에 아동보

호 자원봉사자인 잔딜레 음브하말리는 "성인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어린이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웃에 사는 어린 4자매가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술에 취한 삼촌이 막내를 폭행하려고 했어요. 당시 막내는 7살 이었죠." 라며 어린이 폭력을 막아냈던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아동 보호 자원봉사자들은 학대 사건을 발견하고 신고하기 위해 스와질랜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최소 2명 이상의 전담 경찰관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신자부담 전화 서비스도 마련했습니다.

충격적인 조사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2007년 충격적인 조사 결과 이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스와질랜드의 어린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어린이에 대한 폭력과 학대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유니세프 스와질랜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매달 500건 이상의 폭력과 학대 사건이 보고되었고 그 중에 40퍼센트가 0~18세의 어린이가 피해자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여자 어린이가 84%를 차지했습니다.

사례4.

일생 일대의 권리를 박탈 당한다면...? '조혼 근절'을 위한 유니세프의 새로운 노력

기본권을 박탈당한 어린이들

내가 언제, 누구와 결혼할 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 어린이 4명 중 1명은 이 소중한 권리가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딸을 지킬 거예요. 제 딸은 제가 겪은 상황을 겪지 않길 바래요. 절대 제 딸을 어린 나이에 결혼 시키지 않을 거에요." 14살 시리아 소녀 콰마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난이나 전통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조혼 근절'을 위해 유니세프와 유엔인구기금(UNFPA)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문화를 없애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12 개국의 이미 결혼 한 여자 어린이를 지원하는 새

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바바툰데 오소티메힌 유엔인구기금 사무총장은 "언제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여자 어린이들은 배우자나 결혼 시기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여자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각 국가가 사회•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혼 비율이 높은 국가들과 여자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혼은 왜 없어져야 하는가?

어떤 이는 조혼은 문화가 아니냐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혼은 문화가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니제르에 살고 있던 하비바는 14살이 되던 해 결혼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임신을 했고, 제왕절개를 하게 됐습니다. 서투른 제왕절개 수술로 자궁에 구멍이 생겼고 아기는 태어난 지 한 시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버림 받은 하비바는 마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자궁에 난 구멍으로 평생을 요실금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비바는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굴욕감을 느껴 물을 구하러 밖에 나가기 조차 꺼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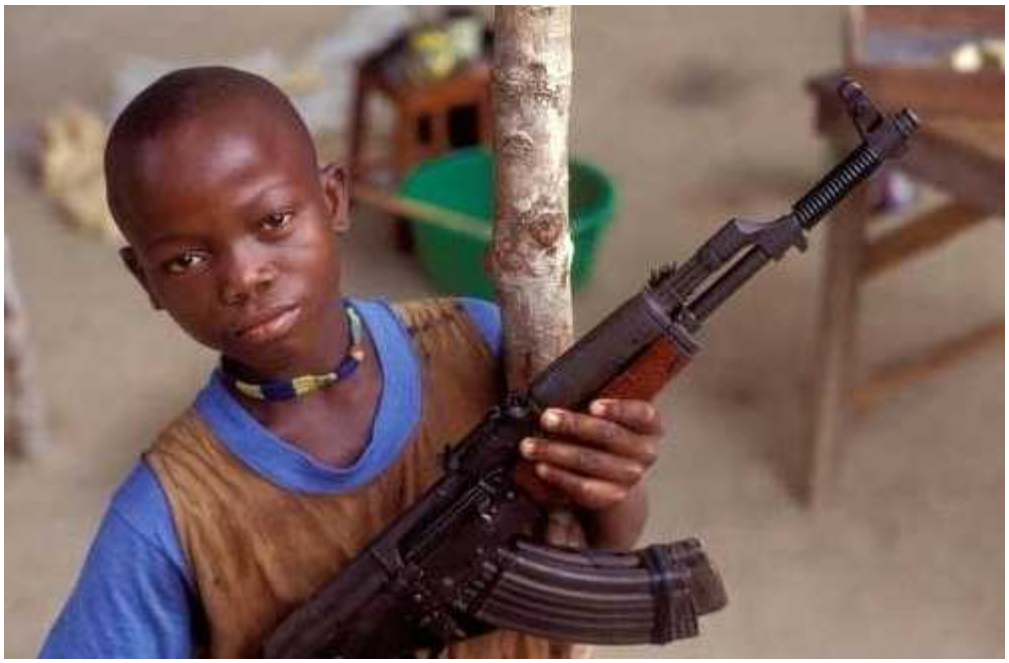
어린 나이에 결혼한 어린이는 대부분 학업이 중단되고 가정 폭력에 시달립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으며 합병증으로 고통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혼은 경제

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빈곤의 대물림을 고착시킵니다.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는 "조혼이 한 여자 어린이, 그 여자 어린이의 자녀,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전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조혼이 근절되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어린이와 여성은 2030년엔 10억 명에 달할 것 입니다. 10억 명의 어린 시절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동시에 10억 명의 미래가 망가진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례5.

살인 도구 벗어나도 다시 스파이… 소년병의 눈물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소년병으로 납치됐던 아이들이 구출된 뒤에도 정부의 착취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아이들을 스파이로 활용하는 등 다시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말리아에 33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유엔 및 정부 관계자, 피해자를 인터뷰해 소말리아 정보·안보기구(NISA)가 소년병 출신 소말리아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년병은 반군 등 무장단체에 납치된 18세 미만의 아이들로 강제로 훈련을 받아 전선에 투입된다. 성인 용병보다 경제적이고 통제가 쉽다는 이유로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소년병에 대해 소말리아 정보 기관은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이슬람 무장단체 '알 샤밥'의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 샤밥은 빈 라덴이 조직한 알카에다를 추종하고 있는 소말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학교를 직접 공격해 수백명의 학생을 납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가 인터뷰한 소년병 출신 8명은 모두 알 샤밥으로부터 구출된 뒤 NISA에 구금된 상태에서 작전에 투입됐다. 협조를 거부할 경우 구타를 당했고, 구출된 사실은 부모들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이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소년병 출신의 한 아이는 "(정부 관계자가) 나를 끌고 가서 누가 알 샤밥 조직원인지 말해달라고 말했다"며 "내가 정부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게 정말 두렵다"고 말했다. 13살 때 알샤밥에 납치됐다 풀려난 뒤 NISA에 구금된 압둘라 역시 "몇 일 정도만 갇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년 동안 정부 작전에 투입돼야 했다"며 "용의자를 지목할 때마다 2달러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소말리아 정부는 구출된 소년병을 72시간 내에 풀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년병 문제는 미국이 이를 묵인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국제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소년들을 납치해 병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 실제 2008년 미국 의회는 '소년병 방지법'을 제정해 통과시켰고, 소년병을 활용하는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말리아 정부 관계자는 "NISA가 하는 모든 작전 중에서 미국 CIA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CIA 측은 소말리아 소년병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소말리아의 사정이 좋아질 경우

완전한 소년병 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말리아 정보기관이 소년병을 스파이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인 라이티티아 베이더는 "소말리아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소말리아 군은 물론 정보 기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소말리아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소년병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